



가을 차창가의 코스모스향연을 즐기며 고속가도를 2시간여 달려 낮설은 충청남도 대전땅에 닿았다.

여기는 충청도청소재지이며 본회 충남지부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마침 이날 있던 충남지부세미나에 연사로 초빙된 田山草회장님과 한국일보 鄭光談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대전 가톨릭문화관회의장에 두분을 안내해 드리고, 곧 그곳에 참여한 이명훈간호감독의 안내로 충남의대 부속병원을 탐방할 수 있었다.

교육도시라 일컫는 大田시내 대흥동에 자리잡고 있는 “충남의대부속병원”은, 탁트인 전경과 맑은공기,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요양하는 병원이라면 당연한 구비조건인 듯 그러한 느낌을 더욱 강렬히 풍겨주고 있었다.

1972년 8월에 개원된 이병원은 아주 짧은 역사를 지녔으나 그 前身이 충남도립의료원으로서, 거슬러 올라가 충남도립비전의원(1930년)→(1951)충남도립대전병원→충남도립의료원(1966)으로 승격되어 오는동안 63년도엔 한국정부와

스칸디나비아 정부간의 5개년 의료사업계획협정 등 끊임없는 협조와 케찍이 있었고, 68년에 충남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되고 이어서 70년도에 간호학과가 설치되면서 문교부와 내무부간에 충남도립의료원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사용운영케하는 협정체결이 있게 되므로서 오늘의 부속병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초대원장에 윤봉현박사가 취임되어 의학과, 간호학과교육, 대학원생교육, 인턴, 레지던트교육, 조산, 보건교육등을 전개했으며 도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의료진으로는, 근간 취임하신 전 경북의대 학장을 지내고 현충남의대학장을 겸임하신 蘇柱永박사님을 원장으로하여, 전문의 18, 레지던트 26, 인턴 10, 간호원 66, 약무 4, 보건 7, 기타 직원 71명등을 팀웍으로 하고있으며 한편, 의과대학생 86명, 간호학과생 62명; 대전간호학교생 40여명이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어 커다란 교육의 전당이 되기도 한다.

시설규모는, 대지가 8천여평에 총전평 2천여평을 갖췄으며 시설기준 300Bed로 현재 160Bed가 인가 났고 병실은 1~6人用까지 있다. 기계기구

는 총 2250종으로 거의 스칸디나비아 원조로 진 물이나 설비기계 및 진료각과시설, x-Ray, 수술 실등 환자흡수에 손색없는 시설이라든 것이며 16개진료과와 혈액은행, 임상연구실, 모자보건, 가족계획상담실도 구비돼 있다고 한다.

입원료는, 전국 국립대학 부속병원에 준하고 있으나 빈민들에게 무료봉사도 인색치 않고 있다는 그들의 이야기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간호원수 66명이면 의료법기준수에 미달되고 있으나 적지않은 팀이라 생각되는데 간호과장이 현재 공식으로 되고 간호보조원이 없어 잔일에 까지 손이 가야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장대리의 중책을 맡고 노심초사하는 이명훈간호감독은 젊은 패기를 보이며 잘 참고 카바해 나가고있는 모습을 실증해주고 있었다.

또한 마침 이날 지부세미나에 연사로 나오신 蘇柱永병원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의 병원행정 구조는 잘못돼 있다. 어찌서 의료사업을 하는 병원행정에서 병원장실 곁에 사무과가 접해있을 수 있는가. 의료요원인 “의사곁엔 간호원, 간호원 곁엔 의사”가 항상 바늘과 실과 같이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그러기에 본인은 병원장

실 곁에 사무과 장실이 아닌 간호원장실을 두고 일해나가겠다」는 자상하면서도 발전적인 병원행정 소신을 폈다.



〈소주영 병원장〉

아마도 이같은 蘇병원장님의 홀몸하신 배려하는 어느 타병원의 간호원보다도 앞으로 간호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커다란 발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든든 하다.

마지막으로,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의 경우처럼 까딱 흔들케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경우이기에 아무튼 한집식구인 의과대학 소개를 잠시 해보고자 한다.

의과대학생과 간호학과생은 아직 졸업생 비율이 안됐고 내년도가 제1회졸업으로 경축의 해다 하며, 현 간호학과장직을 맡고있는 본은 본회 충남지부장으로 수고하시는 安鴻子氏이다.

또한 대전간호학교생도 함께 실습에 임하고 있어 한 지방의 협조가 잘되고 있다 한다.



〈간호감독, 수간호원들이 한자리에서〉

대개 “종합병원”하면 불친절하다는 인상이 짙으나 아병원을 거쳐간 환자는 항상 만족하고 있다고 이자리에 모인 우리 충남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랑을 퍼며 구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林>